

#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 사례를 통해 본 기법

### '후쿠이에'의 '구멍 뚫린 주전자 뚜껑' 발명

구멍 하나도 꼭 필요한 곳에 잘만 뚫면 발명이다. 일본의 후쿠이에에는 주전자 뚜껑에 뚫은 구멍하나로 발명가가 되어 부를 누릴 수 있었다.

후쿠이에에는 평범한 셀러리맨.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었다.

남달리 욕심도 많지않아 항상 자기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맡겨지기만 하면 최선을 다하는 모범사원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후쿠이에에는 과로에 지쳐 감기 몸살로 앓아 눕게 되었다.

‘일이 많이 밀려있는데 큰일이구면’

웬만하면 털고 일어나 출근하려 했으나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치료를 겸해 하루 쉬기로 결심하고 침대에 들어 누었다.

침대 옆에는 난로가 타고, 그 위에는 물이 반쯤 담긴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오랜만에 쉬어보는 편안한 하루였다. 침대에 누워있던 후쿠이에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단잠을 방해하는 것이 있었다.

‘덜컹덜컹, 덜컹덜컹...’

주전자 속의 물이 끓자 뚜껑이 들썩거리는 소리.

주전자 속의 수증기가 빠져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듯 했다.

주전자를 내려놓을까도 했지만 방안이 건조하고, 아예 열어놓자니 방안이 수증기로 가득 차버릴 것같아 이리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순간 후쿠이에의 눈에 송곳이 보였다. 순간 신경질적으로 송곳을 집어들어 주전자 뚜껑을 찢어버렸다.

신기하게도 뚜껑이 들썩거리는 소리가 멈췄다. 수증기 또한 집안 습도 유지에 그만이었다.

‘아! 잘 잤다.’

한참동안 늘어지게 자고난 후쿠이에에는 주전자를 살펴보았다.

주전자 속의 물은 계속 끓고 있었고, 송곳 구멍사이로 새어나오는 수증기는 아름답기까지 했다.

‘모든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뚫도록 해야겠다.’

채 완쾌되지도 않은 몸으로 특허청을 찾아 실용신안 출원을 마쳤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전자공장은 물론 남비 공장에서도까지 그를 찾아왔다.

로열티를 지불할테니 권리를 양도해달라는 것.

망서릴 것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구멍뚫린 뚜껑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후쿠이에의 수입은 눈이 쌓이듯 차곡차곡 쌓여만 갔다.

### '하리다리기조'의 '스폰지 고무붙인 라켓' 발명

“ 구멍 하나도 잘만 뚫으면 발명이다.  
일본의 후쿠이에는 주전자 뚜껑에 뚫은  
구멍 하나로 발명가가 되어 부를 누릴 수  
있었다.”

일본이 세계적인 탁구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라다리기조의 '표면에 스폰지 고무 붙인 라켓' 발명 덕분이었다.

2차대전의 패망과 함께 폐허가 된 도시에서 탁구장을 경영하던 하라다리기조는 탁구공이 쉽게 깨져버려 골치를 앓고 있었다.

'어떻게 만들길래 십분만 치면 깨져버릴까?'

무척 화가 났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 몇개 회사에서 탁구공을 생산하고 있어서 모두 구입해 시험해 보았으나 한결 같았기 때문.

손님은 제법 많아 남보기에는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았으나 탁구공을 구입하고 나면 겨우 끼니를 이을 정도였다. 그렇다고 달리 시작할 사업도 마땅치 않았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라다리기조의 머리 속에는 온통 이 생각뿐이었다.

탁구공을 손에 쥐고 밤낮으로 살펴보았으나 뾰족한 생각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라켓을 살펴보기로 했다.

당시의 라켓은 판자를 재료로 공이 닿는 부분에 콜크나 라벨고무를 붙여 만들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다.'

하라다리기조는 무릎을 쳤다. 공에 충격이 덜가는 라켓을 생각해낸 것이다.

'콜크나 라벨고무 대신 스폰지 고무를 붙이면 어떨까?'

하라다리기조의 생각은 적중했다. 우선 자신의 탁구장에서 사용하는 라켓을 모두 개조해 실험해 보았다.

성공이었다. 십분이면 깨지던 탁구공이 한시간 이상을 견뎌냈던 것이다. 서둘러 실용신안

출원을 마치고 상품화에 들어갔다. 이때가 1950년.

하라다리기조가 만든 라켓은 날개돋힌듯 팔려나갔다.

때마침 우리나라에 전쟁(6.25)이 터지고, 이 때문에 일본에서 휴가를 즐기는 외국군인들까지 탁구를 즐기자 라켓의 판매는 더욱 더 활기를 띠었다.

행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놀랍게도 이 라켓을 가진 일본 탁구선수들이 남녀 모두 세계를 제패, 수출까지 활기를 띠었다.

야구해설가가 이 라켓의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 라켓으로 치면 드라이브가 먹혀서 상대편 안쪽 깊숙히 공이 날아가 꽃히지요.'

이 탁구공의 특성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공이 라켓에 와 닿을 때도 스폰지 속에 공이 파고 들어서 변화구를 칠 수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첨단과학기술까지 동원된 라켓이 생각되고 있지만, 일본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하라다리기조를 일본 탁구계의 성인으로 자랑하고 있다. <王然中記>

## 신 간 안 내

# 발명박사 1·2

규격 : 국판 240면

가격 : 각권 3,000원

판매 : 본회자료판매센터

(전화/(02)551-5571)